

# 도심 재생 사례 연구: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Urban Regeneration: Gamcheon Culture Village, Busan

이 영 준\*, 김 진 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Young-jun Lee\*, Jin-Yo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요약

많은 지역에서 구도심 개발이 지역정체성을 훼손하고 거주민의 소외라는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도심개발사례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을 소개한다. 지역개발은 다양한 측면의 가치 창출을 동반하는 종합적인 기능과 더불어 관광수익의 창출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 감천문화마을은 구도심과 신도심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도심재생사례가 될 것이다.

## I. 감천문화마을의 유래

감천마을은 20세기 초 강증산선생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태극도의 총본산지로 시작했다. 이곳은 교통왕래가 잦았던 반달고개를 중심으로, 한국전쟁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의 흔적과 기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산토리니라는 별명이 말해주듯이 옥녀봉에서 천마산에 이르는 산자락을 따라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형태는 감천동만의 독특한 장소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앞뒷집을 연결하여 열린 공간으로서 서로를 배려하며 소통하고 사는 한국적 정서가 남아있는 마을로서, 과거를 반추하고 느린 삶의 고즈넉한 풍취를 공유하려는 현대인을 위한 안식의 장소로 인기가 높다.

## II. 감천마을의 장소성 및 지역문화

### 1. 장소성

장소성이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가운데는 풍광, 지역에서 통용되는 지식이나 정보, 설화와 같은 유, 무형의 자원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장소성은 특정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정체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 감천마을은 전후 고단한 삶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동시에 현대적 감성과 품격 있는 문화, 제기발랄한 창의성이 돋보이는 복합적인 장소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고달픈 서민들의 집거지였던 달동네는 몇 년 사이 가장 극적인 변신을 하였고,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교육과 문화에 기반을 둔 장소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 2. 공공미술프로젝트로서의 가치

과거 특별한 도시개발계획 없이 마구잡이식 개발에 나섰던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본격적으로 건설되면서 소통과 개방성이 중시되었던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되기 시작한다. 이후 도시의 구조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과 개별주택 지역으로 나뉘게 된다. 공간특성상 인구밀도가 높은 공동주택지역으로 인해 행정 기관이 집중되고 근린상업지구가 발달하게 되면서 신도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반면 개별주택 지역은 시간이 갈수록 쇠락하게 되어 구도심지로 전락하여 지역 간 소득 및 발전의 양극화는 물론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되었다 [2]. 이러한 지역 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도심재생방안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된다. 하지만 개발위주의 도심재생은 '지역정체성'을 보존하고 기억의 장소로서 활용하기 보다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거대공동주택지역을 확대하고, 환경훼손은 물론 문화와 역사가 결여된 정체불명의 도시를 양산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파괴적인 개발 정책을 지양하고, 기존 주거공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창조적 개념의 도시재생전략이라 할 수 있다. 공공미술프로젝트에서 가장 우선 하는 것은 주위 환경과의 조화이다. 재조직 또는 재구성할 문화요소는 지역의 독특한 이야기깃거리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풍광, 기존의 건축물 등 다양한 유, 무형의 지역문화자원이 두루 포함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감천마을은 이러한 유, 무형의 문화자원뿐만 아니라 지역만의 역사와 이야기가 있으며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한 인적자원이라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여 탄생한 지역이다. 이곳은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낙후 지역이 재생하고 매력적인 관광지

로 탈바꿈할 수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 감천마을은 부산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재생 사업 중 우수 사례로 뽑힌다. 2013년에는 대한민국 지역희망 박람회에서 대통령 표창인 지역발전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마을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양극화문제를 안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에게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3. 다양한 지역문화콘텐츠

감천마을의 지형적 특징은 바로 '미로와 같은 꼬불꼬불한 길'과 '부산시가가 한 눈에 들어오는 고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도심재생에서 도로의 정비의 필수인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곳의 꼬불꼬불한 도로는 역설적으로 관광객으로 하여금 즐거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 길은 또한 단지 '미로'에서 그치지 않고, 허름한 골목길을 들었을 때 기대하지 않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때 더 큰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하는 것처럼 골목골목에 배치되어 있는 아기자기한 장치들은 관광객의 기대심리를 자극한다. 이처럼 거미줄처럼 얽힌 마을 골목은 언뜻 보면 무질서해 보이기도 하지만 길목마다, 골목마다 저마다의 특색을 갖춘 이색거리로 넘쳐난다.

마을 입구에는 관광객을 위한 안내센터가 있어 유인물과 팸플릿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물고기 모양의 이정표에서 이 마을이 바닷가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어지는 계단길을 지나면 아담한 갤러리와 형형색색의 벽화를 만날 수 있다. 과거의 골목을 마치 그대로 옮겨 온 것처럼 작품으로 태어난 빈집, 주민들이 쓰던 물건으로 꾸민 작은 박물관, 마을 커뮤니티센터로 재탄생한 대중목욕탕 등 곳곳에는 관광객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즐거운 추억을 되살리는 콘텐츠로 가득 차 있다. 마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태극도'이다. 이곳은 태극도 신도들의 집거지로서 당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종교적 신의를 지켰던 신도들의 마음이 독특한 건물 배치에 그대로 담겨 있다. 집은 뒷집의 전면을 가리지 않게 지어지고 옆집이 '내 집'을 타리가 되어 준다. 이 때문에 도시처럼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다들 일이 없다. 빼곡하게 늘어선 집들은 모두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살을 만끽한다. 햇볕은 만물의 생장의 근원이 되듯이 감천마을에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큰 자원이다 [3].

### III. 감천문화마을의 문제점

관광지로 화려하게 부활한 산동네 감천마을의 성공 사례는 옛 정취를 지켜가면서 지역을 되살린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무려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광효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행정기관과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위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마을은 상업지구라기 보다는 전통적으로 개별주택 밀집지역으로 마을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관광객이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소

음을 내는 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줄 대책보다는 오히려 문화마을을 확장할 방침을 밝히,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일에도 하루 평균 800명이상이 찾는 관광지다 보니 주차난도 심각하다. 또한 마을 입구가 통제되지 않다보니 밤에도 충분한 숙면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광객의 왕래가 잦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광역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수익 창출을 통한 경제적 부흥을 위한 기제로 판단하여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당국은 동구 안창마을, 영도구 흰여울마을, 사하구 비석마을 등을 테마가 있는 문화마을로 육성하기로 하고, 각 마을에 공중화장실을 보수하고 보안등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공동 텃밭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낙후마을들을 제 2의 감천문화마을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부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의 관광지화로 발생하고 있는 감천마을과 같은 문제점이 또다시 대두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 IV. 결론 및 제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심재생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간 이견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조정하고 전문가집단과 주민협의체,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자간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조성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의 자원을 직접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천문화마을의 사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배려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포장재 재시공이나 저녁 8시 이후 방문객 제한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학예사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스스로가 관광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일부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관광객이 방관자적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국의 'trust'와 같이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관광으로 그치지 않고 감천문화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주민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명예마을주민증을 부여하여 지역에 대한 친밀감을 제고한다면 일회성 관광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서 주민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 ■ 참고 문헌 ■

- [1] Cross, J., What is Sense of Place? Prepared for the 12th Headwaters Conference, Western State College, November 2-4, pp.1-14, 2001.
- [2] 김현정,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2호 pp.276-286, 2011.
- [3]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http://www.gamcheon.or.kr/>